

# 1930년대의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연구\*

이 상 경\*\*

1. 여공이 된 '인테리 여성' 과 '여류문학'
2. 1930년대의 신여성과 '게니아니즘'
3. 여성작가의 계보와 신진 작가
4. 1930년대 초의 학생운동과 작가 임순득
5. 1930년대 신여성의 이상과 자율적 여성 주체
6. 맺음말

---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A00327)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을 이어 1930년대 초에 전개된 서울의 여학생 시위 운동을 주도하고 이후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에 투신했던 여성 활동가 집단의 존재에 주목하여, 그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들의 대변자로서 작가 임순득을 상정하여, 임순득의 작품을 통해서 그 여성들의 내면과 그들이 지향한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의 이상을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공백으로 되어 온 1930년대 식민주의에 저항한 여성들의 운동과 문학의 실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30년대 초 근우회의 해산 이래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은 지하화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1920년대는 '신여성'으로 통칭되었던 이들은 1920년대 말부터 '모던 걸'과 '맑스 걸' 혹은 '콜론타리스트'로 나뉘어 인식되었고 1930년대의 억압적 상황에서 모던 걸이 교사나 현모양처로서 현대여성으로 정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콜론타리스트의 후예들은 지하운동을 통해 자기를 단련시켜 나갔다.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에 투신한 박진홍, 이경선, 이순금 같은 여성과 작가 임순득은 1930년 초의 서울의 여학생 운동을 겪었고, 동덕여고보에서 독서회 활동, 동맹휴업 같은 학생 운동을 함께 벌인 인물이다. 이들 중 박진홍, 이순금은 이전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에게 흥미했던 '콜론타리즘'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생활과 지하운동의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자기 비판을 거쳐 공적인 일과 사적인 연애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관 속에서 평등한 남녀관계를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작가로서 임순득은 여성문학사에서 지금까지 1930년대 후반 여성 문단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알려진 최정희, 모윤숙, 노천명 등 여성 문인들의 '여류문학'을 비판하고, 그들이 대부분 친일문학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식민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작품들을 썼다.

핵심어 : 서울 여학생 연합 시위, 임순득, 박진홍, 이순금, 모던 걸, 맑스 걸, 콜론타이, 케니아니즘, 「가을의 선물」, 「대모」, 여류작가, 신진 작가

## 1. 여공이 된 ‘인테리 여성’ 과 ‘여류문학’

1936년 8월 24일자 『조선중앙일보』에는 「공장층에서 활약한 대담한 인테리 여성—이경선(李景仙, 22) 과 이순금(李順金, 24) 양인, 만록총중 홍이점(萬濼叢中紅二点)」이라는 상당히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전 조선에서 5백여 명의 검거를 낸 조선공산당재건동맹 사건 관계자 가운데서 만록총중 홍이점의 격으로 꽃다운 두 명의 젊은 인테리 출신의 가장 ××적 여성이 있으니 하나는 제주도 모슬군 출생의 경성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생 이경선과 다른 하나는 그의 동창생인 부내의 익선동 33-17번지 이순금이다. 그 중 이경선은 여권적인 공기가 높은 섬나라 제주도에서 자라난 만치 [...] 동덕여학교를 재학하는 일방, 남녀 학생에게 좌익 팜프렛을 나누어 주며 아지 프로를 하기에 발분망식의 활약을 한 여자로서 한때에 경성 안팎의 학생 간에서는 이 이경선의 별명을 한국의 폴쉬비끼라고 불리 좌익의 남녀 학생으로서 이 폴쉬비끼의 별명을 모르는 이가 없을 만치 되어 실로 미래의 로자 룩셈부르크가 될 소질을 풍부히 소유하고 있었다 한다.

[...] 이경선과 이순금은 [...] 다시 이 조선 공산당 재건동맹 조직에 있어서 학생층과 여공층의 오르고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경선은 영등포 모 공장에 이순금은 동대문 외 모 직물공장 여공으로 각각 잠입하여 일상 캅파를 통해서 수 개 처의 야채이카를 결성한 후 조직적으로 활동을 벌여 오다가 그같이 검거된 것으로 그들은 감방 ××에 있어서도 가장 ×쟁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다.

이 기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경선과 이순금이라는 두 여성이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출신의 지식인으로서 학생 운동을 거쳐 여공이 되었고 노동 운동을 통해 이재유 그룹의 조선 공산당 재건 운동에 적극 관여하다가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두 여성의 행적은 1930년대 여성 활동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1930년대의 활동가들은 1920년대처럼 특정한 계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안의 독서회 등을 통하여 사상이론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 안에서 동맹 휴학 같은 투쟁을 벌

인 뒤, 졸업 혹은 퇴학으로 학교를 나와서는 대부분 공장의 노동자로 '대중 속으로' 투신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이들은 해방 직후 각종 사회운동의 중요한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의 사립 동덕여고보는 이런 여성 활동가들을 배출한 요람이었다.<sup>1)</sup>

일제시대 서울에서 중등 교육을 담당한 여학교는 공립 경성여고보, 사립 이화여고보, 숙명여고보, 진명여고보, 동덕여고보, 배화여고보, 그리고 경성여상 등이 유명한데<sup>2)</sup> 그 중 천도교 계통의 동덕여고보는 당시 기독교 계통 여성운동가들의 산실이었던 이화여고보와 쌍벽을 이룬,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산실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1930년대의 사회주의 여성활동가들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일제 말 총동원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해방 후에 여성 운동의 중심 인물로 나서게 되는가? 등의 의문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란 간단한 경력 사항 정도이다.<sup>3)</sup>

- 
- 1) 경성 지역 활동가들 중 학생 또는 인테리 출신으로서 30년대 새롭게 성장한 활동가들 중 대표적인 예는 이관술이 교사로 있던 사립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출신들인 이순금 박진홍, 이경선, 김재선 등이라 할 것이다. 이들은 주로 학교 시절부터 이관술을 중심으로 학교 내 독서회 활동 등을 통해 의식화되고, 맹휴 등의 투쟁 경험을 통해 단련되었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직접 대중 속으로 투신하여 혁명적 노동 운동 등에 종사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학생층을 조직화하여 노동운동과 결합시키는 모범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30년대 운동 과정에서 20년대와는 달리 여성 활동가들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실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경성 지역 노동 운동에서 이들을 조직화하고 지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변은진, 「1930년대 경성지역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연구」(고려대 석사, 1991), p.58 참고.
  - 2) 그밖에도 정신여학교, 태화여학교, 근화여학교, 경성보육학교, 경성실천여학교, 경성여자미술학교 등이 있다.
  - 3) 이들의 행적은 강대경 위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 사전』(창작과 비평사, 1996)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순금(李順金, 1912~?, 1932년 3월 졸업), 박진홍(朴鎭洪, 1914~?, 1931년 6월 퇴학), 이경선(李景仙, 1914~?, 1933년 3월 졸업). 이들 중 유일하게 박진홍만이 연구자의 조명을 받았다.(오미일, 「박진홍—비밀지하 투쟁의 레포로 활약」, 『역사비평』 1992년 겨울호); 최근 출간된 안재성의 『경성트로이카』(사회평론, 2004)에서 박진홍과 이순금을

한편, 위의 기사보다 반년 정도 늦은 시기인 1937년 6월 『조선일보』 지상에는 여성문인들을 ‘여류 작가’라고 폄하하는 당대 문단의 분위기와 거기에 편승해 안주하는 여성들을 비판하는 임순득의 「여류작가의 지위」라는 평문이 발표되었다. 이 글은 당시 문단의 ‘여류작가’ 논의에서 ‘여류’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할 만큼 작가로서의 여성과 남성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널리즘은 ‘여류작가론’을 운위하면서 성적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전날에는 [...] 예술가는 따라서 낡은 문화의 상어를 짊어지고 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화차(花車)를 이끌고 올 행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이 미미하게나마 불충분하게나마 또 많은 불순을 포함하여서나마 지불되었었다. 거기에서는 ‘여류작가’라는 적면(赤面)할 관념은 형성될 수 없었다. 다만 그 때 정치활동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성실한 여자의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활동에서는 아직 그 멍아 이외에 더 나은 성육(成育)은 없었을 따름이었다. (밑줄은 인용자)

인제는 그 소박한 뭉치나마 산산이 부서지고 만 지 몇 해가 지났다. 무엇인가가 그 뭉치의 해체를 원하였을 뿐 아니라 그 뭉치를 구성한 요소들의 사회적 생리 그것이 이산을 더 빨리 만들어냈다. [...] 제각기 흩어져서 제각기 웅크렸다. [...] 무치(無恥)한 변절이 있는가 하면 목원 소리로 원칙만이 외쳐졌다. 그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초라하게 양심과 세속이 불안정한 길 위를 어슬렁거렸다. [...] 마치 그것은 감독자가 외출한 뒤의 불량소년의 무리였다.

평론가는 요설을 늘이고 다른 사람을 타매(唾罵)하는 데에서 쾌락을 얻기를 좋아하고, 혹은 사 들인 혹은 우연히 본 서적을 자랑하고 잼처먹기에 급하여 악취 나는 배설을 하고 [...]. 그리고 불행히 여자였던 작가들은 글을 쓰는 모든 부인들과 함께 통틀어 ‘여류작가’가 되어지고 말았다.<sup>4)</sup>

‘복원’했는데, 이 책은 새로운 생생한 인물을 창조한 소설도,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고 재해석한 역사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다.

4) 임순득, 「여류작가의 지위—특히 작가 이전(以前)에 관하여」, 『조선일보』 1937. 6.30~7.4.

1930년대 후반의 문단의 상황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전날의 ‘소박한 몽치’란 카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임순득에 의하면 카프 시기에는 아직 ‘여류 작가’란 개념은 없었고 몇몇 여성들의 ‘맹아’적 단계의 문학 활동만이 있었는데 카프가 해산된 후 다양한 문학적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1930년대 후반의 주류 문단은 그 이전 시기 여성들의 문학에서 드러났던 정치적 차이를 호도하기 위해 모든 남성 작가에 대비되는 ‘여류작가’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전반 여성들이 보여준 활발한 정치적 활동에 부응할 만한 여성들의 예술적 활동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더 쉽게 그런 편견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 활동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실한 여자의 유직임’이란 넓게 보면 1920년대 중반부터 전개된 사회주의적 여성운동을 가리키겠지만, 좁게 보면 앞에서 살펴본 이순금, 이경선과 같은 여성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임순득은 1931~1933년 이화여고보와 동덕여고보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면서 앞서 살펴본 여성 집단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나 당 재건 운동과 일정한 연관을 맺었고, 1930년대 후반에는 그러한 여성들의 정치적 활동에 부응할 만한 예술적 활동을 추구한, 그들의 예술적 대변자이기 때문이다.

임순득이 추구한 예술 활동은 식민주의에 협력하는 길로 나아간 다른 여성 작가들—이들은 그의 선배 세대인 썬이다—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1937년 등단한 뒤, 소설과 평론을 통해 그 이전이나 동 시대의 다른 여성 문인들을 비판하면서 민족 문제와 여성 문제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 말기, ‘내선일체의 황국신민화’와 ‘대동아공영권의 전쟁동원’의 정책이 강요되고 거기에 호응하는 목소리도 높아갈 때 임순득은 오히려 민족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며, 많은 여성 문인과 교육자들이 국가라는 공동체에 헌신하는 군국의 어머니를 찬양할 때 임순득은 자율적 여성 주체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임순득은 어떻게 동시대의 다른 여성 작가들과는 다르게 식민주의에 저항하고 여성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독특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한 사유가 가능하게 한 그의 지적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임순득이 1929년 말부터 1930년까지 전국을 휩쓸었던 광주학생운동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혁명적 노동조합운동과 당 재건 운동에 헌신한 일군의 여성들과 지적 배경을 같이하고, 어떤 측면에서 그들의 문학적 대변자였기에 그러한 문학 세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고, 임순득의 개인사와 작품 경향을 통해 이를 밝힌 뒤, 일제시대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위에서 가지는 임순득의 독특한 위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1930년대의 신여성과 ‘게니아니즘’

우리가 통상 ‘신여성’이라고 할 때에는 3.1운동을 전후하여 중등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온 여성들을 가리킨다. 신여성이라는 말 자체는 잡지 『신여성』의 발간(1923년 9월 창간)으로 보편화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신여자’라는 말이 좀더 일반적이었다.<sup>5)</sup> 신여성이란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자각과 여성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형성된 근대의 산물이다. 공적 영역에의 참여란 교육을 받고 가정 바깥의 사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 등의 공공 영역에 여성이 참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고 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아 해방과 사회 해방을 동시에 추구했던

5) 서양의 new woman을 일본에서는 新しい女로 번역했고 그것을 조선에서는 ‘신여자’로 받아들였다. 1921년 김일엽이 주재한 잡지가 『신여자』였기에 개벽사에서 1923년 새로운 여성 잡지를 창간하면서 그것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신여성’이란 말로 잡지 이름을 삼은 것으로 보인다.

존재이다. 아니 스스로 의도했던 하지 않았든, 개인이 추구했던 해방이 사회적 의미를 띠게 된 존재였다.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윤심덕, 박인덕 등 3.1운동을 전후하여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와 1920년대 중반까지 문화계에서 활동을 한 여성들이 이러한 신여성의 대표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들 외에 의사, 교사 등의 전문적 직업을 가진 여성들도 신여성으로 불렸다. 또 1920년대 중반 대중들 앞에 등장한 허정숙과 정종명은 의식적으로 사회 해방을 추구하고 낭만적 사랑보다는 동지애를 더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지향점은 이들과 달랐지만 ‘신여성’으로 통칭되었다.

1920년대 신여성의 대표들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적 여성운동과 사회주의적 여성운동의 양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일시 근우회에서 만났지만<sup>6)</sup> 근우회가 양쪽의 이견으로 해산되고 대중 운동도 약화되면서 1930년대에는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활동가들의 경우 한쪽은 여성 교육과 농촌 계몽운동에, 다른 쪽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쪽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여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신여성’이란 말보다는 ‘모던 걸’<sup>7)</sup>이나 ‘콜론타리스트’, 혹은 ‘맑스 걸’ 같은 말이 당대의 전위적 여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신여성이란 말이 구여성과 비교하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던 반면, 모던 걸이나 맑스 걸은 걸로만 모던이나 맑스를 추구하는 경박한 존재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상했다.<sup>8)</sup> 그리하여 1930년대의 여성은 당시의 표현을 빌자면, “아메리카니즘

6) 근우회는 신간회에 비해 훨씬 쉽게 협동이 이루어졌다. 여성운동이 아직 형성 단계에 있었던 만큼 남성들의 운동 단체처럼 노선이나 계파가 복잡하거나 강고하지 않았던 것이 그 중요 이유이다.

7) 모던 걸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1920년대 후반이다. 일본에서는 1926년 무렵 일반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동아일보』 1927년 8월 17일자 기사에서 「붉은 다리의 유행—동경의 모던 걸 중에서」라고 해서 동경의 긴좌 거리에 양장을 하고 맨다리로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나타나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처음 모던 걸이란 말이 나온다.

8) 다만 맑스 걸과 콜론타리스트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사용된 것 같다. 허정숙이나 정종명을 조선의 콜론타이라고 하지만 맑스 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에 물 젖은 모던 걸”과 “맑시즘에 물 젖은 콜론타리스트”, “규중에서 콩나물 같이 멋없이 자라난 구여성”의 세 부류로 구성되는 셈이다.<sup>9)</sup>

그런데 1930년대 사회 운동이 지하화되고 검열이 강화되자 각종 저널리즘에서는 흥미 위주로 신여성 담론을 양산하면서 신여성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었던 ‘해방에의 지향’과 ‘서구적 외양 추구’의 두 의미 중 서구적 외양을 추구하는 모던 걸이라는 측면만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켰다. 그 결과 1930년대에 술하게 쏟아져 나온 신여성 비판문들은 대개 근대 문물의 소비자로서의 신여성—모던 걸을 비난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sup>10)</sup>

한편 콜론타리스트란 물론 콜론타이의 사상을 따르는 여성이란 의미로 쓰였고, 사랑이나 정조 관념보다 정치적 지향을 우선하는 사회주의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콜론타이는 1927년 무렵부터 주로 소설 『붉은 사랑』(1923)과 『삼대의 사랑』(1925)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콜론타

이들의 나이가 30세 전후여서 ‘걸’이라고 부르기 곤란했던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걸’에는 유행을 따르는 경박한 존재로 얽잡아 보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9) 정순정, 「신여성론」, 『조선중앙일보』(1934.11.9~11.14)

10)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상경, 「여성활동가와 모던 걸 사이에서」, 『문학사상』 2002.1. 김경일은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 역사, 2004), pp.28~30에서 일본에서는 1910년대에 신여성이, 1920년대에는 모던 걸이 출현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 1920년대에 출현한 신여성은 일본의 신여성과 모던 걸이 복합된 모습이며, 일본에서 주로 모던 걸로 일컬어지는 현상—근대적 소비 문화의 향수자—을 조선에서는 신여성에게 적용하고 신여성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았다고 보았다. 그렇게 된 이유로 김경일은 일본에서 신여성은 1910년대 초반 세이토 동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모던 걸은 1920년대에 ‘직업을 가진 경제력 있는 여성’을 일컫는 말로 1920년대 일본 사회의 서구지향과 맞물려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가 1930년대에 서구적인 것들을 부정하면서 비판받기 시작했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극히 어려운 여건이었기에 경제적 기반이 없는 모던 걸은 ‘낭비와 퇴폐’의 상징으로 생각되었고 서구적 근대에 대한 비판과 조선의 모던 걸 논의가 동 시기에 진행되었기에 훨씬 더 비판받았다고 보았다. 조선의 신여성에 일본식의 신여성과 모던 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필자와 김경일 교수는 견해를 같이하는 셈이다.

이가 생각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새로운 원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두 주체의 동지적 결합<sup>11)</sup>이었고 그 핵심은 '여성의 자율성'—사랑은 여성의 삶 속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여성의 주요 임무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있었다.<sup>12)</sup> 그런데 당시에 저널리즘에서 콜론타이는 주로 성도덕과 관련하여서만 조명을 받았고<sup>13)</sup> 특히 『삼대의 사랑』에서 제3세대인 게니아의 경우가 충격을 주어 콜론타이의 연애론을 입센의 '노라이즘'에 비견하여 '게니아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sup>14)</sup>

『삼대의 사랑』에서 제1세대인 마리아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을 버리고 애인을 따라나서서 올가를 낳았지만 그 애인의 사랑이 다른 데로 옮겨가자 관계를 청산해 버린다. 육체와 성신이 동일된 완전한 사랑과 그에 비당한 결혼이 마리아의 이상이였다. 제2세대인 올가는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과 정신적인 사랑의 대상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같등한다. 올가는 남편과 친구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3세대인 게니아는 열렬한 사랑에 빠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공산주의 활동가로서는 우연히 만나 같이 함께 행복을 느끼게 되는 시간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연애니 결혼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서로 책임을 지울 필요는 없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남녀 관계를 추구하기에, 어머니의 애인과의 성관계를 가졌고 그것이 또 어머니의 연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도 없이 몸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올가에게 게니아는 어

11) 콜론타이(신윤선 역), 『연애와 신도덕』(신학사, 1947).

12) 비어트리스 판스워드(신민우 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풀빛, 1986).

13) 홍창수, 「서구 페미니즘 사상의 근대적 수용 연구」, 『상허학보』 12(2004.8).

14) B기자, 「현대 여성은 무엇에 고민하는가—해방이나? 애욕이나?」 『중앙일보』 (1932.1.7)에서는 입센의 소설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와 콜론타이의 소설 『삼대의 사랑』의 주인공 게니아를 비교하면서 '노라이즘'과 '게니아니즘'이란 용어를 쓰기도 했다.

머니처럼 사랑하다가는 일은 언제 하느냐고 되받는 것이다.<sup>15)</sup>

이러한 게니아식 사랑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조차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성을 가볍게 여긴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는 ‘하우스 키퍼’제도<sup>16)</sup>와 겹치면서 일제가 당시 사회주의 여성 활동가를 대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저널리즘에서 ‘맑스 걸’이라고 부를 때는 사회주의 운동을 핑계로 성을 가볍게 여기는 방종한 여자라는 뜻이 부가되었다. 그러나 실상 낭만적 사랑보다는 우정, 감정적 애착보다는 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게니아는 감정에 얽매임 없이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자 했던, 그리고 좀더 자율적이고자 했던, 콜론타이의 상상의 산물이며<sup>17)</sup> 콜론타이가 꿈꾼 ‘신여성’이다. 일찍이 1913년에 콜론타이는 다음과 같이 신여성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피력했다.

그 여자들은 세계를 마치 틀리는 눈으로 해석하고 생활에 대하여 틀리는 반응을 나타내고 상이한 태도로써 이에 접근하고 있다. 과거 여성의 대군 속에서 움트는 새로운 여성의 탄생을 찾아내는 것은 별로 특수한 역사적 혹은 문학적 지식을 필요치 않는다. [...] 그러면 이 새로운 부인이란 어떠한 여성인가? 그것은 그의 로맨스의 결말이 행복한 결혼으로 끝나는 순진가련한 소녀는 아니다. 그의 남편의 부정에 고민하거나 혹은 그 여자 자신의 죄로써 이혼에 조우하는 남편 가진 여인도 아니다. 부질없이 청춘기의 불행한 연애를 한탄하고 있는 노처녀도 아니다. 또 불행한 생활 조건 혹은 여자 자신의 방자한 성질의 희생이 되어버린 ‘애증(愛憎)의 여승(女僧)’도 아니다. 아니 그것은 전

15)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외 지음(장지연 옮김), 『월요일』(일송정, 1994), pp.83~140.

16) 하우스 키퍼란 일본에서 심한 탄압을 받았던 공산당이 권력의 감시의 눈을 피하고, 속이기 위해서 여성당원으로 하여금 아지트를 관리하게 한 제도 혹은 풍습을 가리킨다. 통상 당 상층 간부에게 젊은 여성 당원이 짝지워진다. 그녀는 레포(운동원)나 아지트 유지, 문서의 관리 등을 맡고 세간에서 격리된 생활을 강요받는다. 게다가 당의 ‘충성심’을 악용하여 ‘성적 봉사까지 강요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제도 내지 관습이 행해졌던 토양에는 남편 사회의 여성 멸시의식이 있다. 鈴木裕子, 『岩波 女性學 事典』(岩波書店, 2002), p.644 참고.

17) 비어트리스 판스워드(신민우 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폴빛, 1986), p.443.

혀 새로운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제5 타인의 히로인이다. 국가, 가정, 사회에 있어서의 온갖 노예화에 항의하고 여성의 대표자로서 부인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히로인. 이러한 타입을 점차 현저하게 내걸고 있는 거의 전부는 실로 독신 부인이다. 그렇다. '독신 부인'이다. 극히 최근까지의 여자의 원형은 '아씨'였다. 남편의 그림자며 부속품인 여자이었다. '독신 부인'은 이러한 종속적 역할을 연출하여 남편의 반사경으로 그칠 것을 그만두어 버렸다. 그는 독자의 내적 생활을 갖고 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이해를 좇아 생활한다. 그는 내적 생활에 있어서나 외적 생활에 있어서나 독자적이다.<sup>18)</sup>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인물로서 결혼하지 않고 사랑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여자 계나이를 그려낸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 독립이라든지 육아의 사회화 같은 물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반까지의 대중 투쟁 이후 식민지 조선 사회운동 전체가 공개적인 투쟁을 하지 못하고 운동이 지하화하면서<sup>19)</sup>, 수직인 비중은 적지만 사회주의운동 계열에서 노동자들과의 결합을 외치면서 새로운 종류의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앞에서 보았던 이순금이나 이경선, 그리고 박진홍 같은 여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1930년대 초 학생운동을 거쳐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과 당 재건 운동에 투신하고 일제 말까지 운동에 헌신했다. 그런데 이순금과 박진홍은 이제유를 사이에 둔 삼각관계로 저널리즘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에 소위 '맑스 걸'로 불렸던 이들은 실제 생활과 운동의 과정에서 콜론타이의 주장의 핵심이 사랑보다는 일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여성의 자율성' 획득에 있다는 것을 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하 운동에 몸담고 있던 이들 여성활동가들의 사상이나 내면의 성장을 읽을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 이들은 직접 글을 쓰지 않았다. 운동선상의 많은 지식인 남성들이 운동을 하면서 글도 쓴 데 반해, 여

18) 콜론타이(신운선 역), 『연애와 신도덕』(신학사, 1947), pp.11~12.

19) 1930년대에 사회주의 운동 쪽의 여성명망가들은 근우회의 해산과 함께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허정숙은 중국으로 가고 정중명과 정철성은 특별한 한 조직적 활동 없이 개인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성들은 '하우스 키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보는 경찰과 법원의 심문 조서라든지 재판 기록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일제 당국의 기록이며 또한 매우 공식적이어서 개인사나 내면을 들여다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낭만적 사랑의 환상에서 깨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내적 생활에서나 외적 생활에서나 독자적'인 여성은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한 제3기 여성 작가 임순득의 작품을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여성작가의 계보와 신진 작가

후대의 연구자들은 신여성의 대표자로서 '여성작가'의 면모에 주목해 왔다. 당시 저널리즘의 각종 지면에 오르내린 여러 신여성 중에서 문학 분야에서 활동한 이들만이 연애와 결혼을 둘러싼 일화 수준의 보도 기사를 넘어서서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근대여성작가들을 범주화하는 데 준거로 되어온 자료는 1937년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펴낸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전경』이다. 이 선집에는 모두 15명의 여성 문인<sup>20)</sup>의 작품이 실렸다. 그 중 소설가는 7명이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여류 문인'이라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여류 문인'을 내세운 기획들이 몇 번 시도되었고 그 결정판이 이 책이다. 우선 1933년 1월 창간호를 낸 『신가정』은 창간호에서 '연작 소설'이라는 기획으로 박화성, 송계월, 최정희, 강경애, 김자혜 다섯 명이 릴레이 식으로 쓴 「젊은 어머니」를 연재했다. 작품의 완성도와는 관계없이 5명의

20) 강경애, 김말봉, 김오남, 김자혜, 노천명, 이선희, 모운숙, 박화성, 백국희, 백신애, 장덕조, 장영숙, 장정심, 주수원, 최정희의 15명이다.

여성을 동원하여 독자의 이목을 끌려고 생각했으니 이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눈에 띄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5명 중 송계월은 죽고 김자혜는 잡지사의 기자 노릇만 하고 별다른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큰 의미는 없지만, 이후 '여류 문인', '여류 작가'로 여성의 작품을 묶는 기획의 출발이 되었다. 1934년 12월에 나온 『중앙』에는 '여류작가 5인집'이라는 기획으로 백신애, 최정희, 장덕조, 노천명, 이선희의 소설을 한 편씩 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오사까 마이니찌 조선판』에서는 1936년 4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선여류작가집'이라는 기획으로 백신애(「顯富者」), 최정희(「日陰」), 장덕조(「子守唄」), 노천명(「下宿」), 박화성(「洪水前後」), 강경애(「長山串」)의 단편소설 작품을 일본어로 연재하여 실었다. 당시 편집자는 이 특집이 “조선의 여류 작가 전부를 총망라”했다고 썼다.<sup>21)</sup>

이런 과정을 거쳐 “재화(才華)와 실력을 구비한 십 수인의 작품을 선발하여 여류문단의 제1기적 청산을 보이는 의미”로 낸 것이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전경』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1기'라는 단어이다. 이들보다 이전에 활동했던 나혜석이나 김명순, 김일엽은 아예 작가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들이 제1기 여성 작가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은 1990년대 넘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2)</sup> 이 선집에 소설을 실은 강경애, 김말봉, 이선희, 박화성, 백신애, 장덕조, 최정희의 7명은 당시 '여류작가' 논의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제2기 여성 작가이다.<sup>23)</sup> 그리고 이들의 다음 세대, 즉 제3기로 볼 수 있는 이들이 1930년대 후반 또는 말엽에 등단하는 바람에 작품을 많이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전 세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임순득, 지하련, 임

21) 大村益夫·布袋敏博, 『近代朝鮮文學 日本語作品集』(綠陰書房, 2004), p.130.

22) 해방 후 여성문학인들의 손으로 나온 최초의 사회집 『현대여류문학33인집』(신구문화사, 1964)에도 박화성, 최정희, 장덕조가 제일 선배문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23) 조선일보사에서 1939년 초에 낸 또 한 권의 선집 『여류단편결작집』에는 강경애, 장덕조, 이선희, 박화성, 최정희, 노천명, 백신애의 작품이 실렸다.

옥인 등의 '신진'작가<sup>24)</sup>들이다. 이 제3기 여성 작가는 '낭만적 사랑'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남성의 허위를 비판하거나, 거기에 몰두하는 여성 자신에 대해서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첫 세대이며, 독립된 여성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게 된 세대이다.<sup>25)</sup>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한 제3기 여성 작가의 의의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1기는 1900년 이전에 태어나 3.1운동을 전후해 문화계에 등장하여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서서 첨단 의 삶을 살면서 저널리즘에도 자주 오르내리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등이다. 「백화난만한 기미 여인군」의 인물과 겹치며<sup>26)</sup> 통상 신여성이라고 했을 때 이들을

24) 김동리는 해방 후에 쓴 「여류작가의 회고와 전망—주로 현역 여류작가의 작품세계에 관하여—」(『문화』 1947년 7월호)에서 강경애, 백신애는 죽었고, 가장 선배인 박화성은 침묵 중이기에, 해방 후의 현역으로는 중견층에서는 최정희, 장덕조가 쌍벽을 이루고, '신진층'에서는 임옥인과 지하련이 쌍벽이라고 했다. 임옥인과 지하련은 일제 말 『문장』지 추천을 통해 등단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김동리가 임순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임순득이 해방 후 서울에 나타나지 않고 북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25) 여성 작가에 대해 범주화를 처음 시도한 김윤식은 3.1운동을 전후한 시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을 제1기로, 1930년대에 활동한 박화성, 강경애, 최정희, 노천명, 모운숙을 제2기로 들고, 제3기는 이들이 '신체제문학—친일문학'에 참여하여 친일문인이 된 시기로 구분했다. 김윤식에 의하면 제1기의 여성들은 작품 없이 사교 활동으로 작가 행세를 하면서 사회와의 불화 속에서 파멸해 간 반면, 제2기의 여성들은 든든한 남성 후원자가 있어 사회에서 크게 일탈하지 않고 문단에서 여성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는데, 제3기에는 제2기 여성들의 남성 후원자가 친일로 가면서 따라서 친일로 갔다고 한다. 김윤식이 제시한 틀은 처음 시도였으며, 식민지 시대 여성 작가를 시기별로 범주화했다는 의의는 있지만 자료의 한계 등으로 실상에 맞지도 않고 그 범주화가 사태를 설명하는 데 효율적이지도 않다. 식민지 시기 여성 문인들을 든든한 남성 후원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대별해 보는 방식에서 여성 작가의 주제적 활동은 배제되어 버린 형국이다. 또한 세대론의 틀로 본다면 제3기로 들 수 있는 신진 여성 작가에 대해 주목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김윤식, 「여성과 문학」, 『아세아여성연구』 제7집(1968.12).

26) 「백화난만한 기미여인군」, 『삼천리』 1931.6.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입센의 작품과 엘렌 케이의 논설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제2기는 대개 1900년대에 태어나 192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는 1930년대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당시 '여류문인'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여성들이다. 중등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늘어나면서—전체 인구 속의 구성비로 보면 여전히 극소수이지만 그 전 시기에 비교해서는 대폭 늘어난 셈이다—여학교 작문 시간에 재능을 보인 여학생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글을 쓰며 문단에 나와 기자가 되고, 작가가 되었다. 나머지 많은 여학생들은 '모던 걸'로서 '문화생활'을 꿈꾸며 '신가정'의 현모양처가 되어<sup>27)</sup> 그 잡지들을 읽었다. 문단에서 심심찮게 '여류작가론'을 거론할 만큼 작가 수가 많아졌고 이들의 작품은 '여류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여성적'문학이라고 환영을 받았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문단의 경향은 그 이전과 같은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잃어버리고 각종 '위기'론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신인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고 잡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이들 여성 작가 대부분은 일제 말기 여성에게 강요된 '군국주의 모성'에 동의하면서 친일적인 문학 활동을 하게 된다. 물론 이는 여성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지식인 여성들도 친일의 길로 들어섰으니 여성 작가들도 이들과 궤적을 함께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1930년대 여성 작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에 '여류문인'이라는 틀이 생기면서 그 틀 자체를 비판하고 또 그 틀에 안주하고 있는 선배 작가들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신진'이 나타난 것이다.

27) 1930년대에는 '자유주의'와 '문화 생활'을 내세웠던 '신여성'의 행태에 대한 반성으로, 중등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현모양처론을 이상으로 삼아 체제에 순응해 갔고 그 결과 일제 말 일제가 내세운 군국주의적 모성에 훨씬 쉽게 순응해 가게 되었다고 한다. 작가와 교육자 등 지도자급의 여성들 대부분은 일제 말이면 여성에게 열린 '공적 영역에의 참여'에 기뻐하며 친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제3기의 신진 작가는 1930년대 말에 등단하는 바람에 제대로 문학 활동을 펼치지는 못하다가 해방 후에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 임순득, 지하련, 임옥인 같은 작가를 지칭한다.<sup>28)</sup> 그리고 이들은 자율적인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작품의 중요한 화두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제3기의 작가 중 특히 임순득은 제2기의 문학적 성과를 비판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여성문학을 개척하려고 한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진’이라고 할 수 있다. 임순득은 「일요일」(1937)이라는 소설로 등단했지만 연이어 세 편의 평론을 통해 ‘여류 작가’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했다. 첫 평론 「여류작가의 지위」부터가 그 당시 발간된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전경』을 의식한 글일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선일보에 1938년 1월 28일부터 5회 연재한 「여류작가 재인식론」은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전경』에 대한 본격적인 서평으로서 제3기 여성 작가가 자기 앞 세대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글이다. 여기서 임순득은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전경』이 “부인 작가의 창작적 집적”인데 기성 평단의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망각되어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글을 시작했다. 수록 작품 중 강경애의 「어둠」, 박화성의 「춘소」, 이선희의 「계산서」 세 작품을 들어 강경애의 경우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다룬 것의 의의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주인공 여성이 심리적으로 너무 남성 의존적인 것, 박화성의 경우는 빈궁 여성의 삶에 관심을 보인 것에 의의가 있지만 자연주의적인 묘사에 그친 것, 이선희의 경우는 계산이 오로지 애정의 문제에 국한된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2년여 후에 쓴 「불효기의 여류작가론」에서는 앞선 여성 작가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여성 문학은 새롭게 출발을 해야한다고 선언했다. 이 평론에서 임순득이 최정희에 대해서 대타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28) 시인으로는 해방 후 월북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신진순, 김귀련 같은 이가, 남쪽에서는 수필가로 활동한 전숙희, 조경희 등이 이 세대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다. 1938년 이후 강경애나 박화성이 더 이상 작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정희가 여류 작가의 대표로 인정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들의 작품도 최정희 식 감상주의를 따르거나 혹은 따르기를 강요받는 상황은 임순득이 소망하는 '부인문학'이 나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패기야말로 신진의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신이 쓴 소설 작품에서 낭만적 사랑이나 본능적 모성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적인 여성 주체의 상을 그리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지하련의 경우, 「결별」, 「가을」, 「산길」이 최정희의 「인맥」과 동일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 지하련의 개인 체험을 최정희가 「인맥」 식으로 쓴 것에 불만을 느끼고 지하련이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지하련이 최정희에 대결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sup>29)</sup> 이런 소설 바깥의 정황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서 지하련은 삼각 연애 관계 각각의 당사자의 내면 묘사를 통해, 남성의 허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선택에 당당한 여성을 그려내는 데 반해, 최정희의 여성 인물은 자기의 의지나 선택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우연과 상대 남성의 의지에 맡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하련 역시 제3기 여성 작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임옥인의 경우 출세작인 「후처기」에서 후처로 들어가게 된 신여성은 지나간 사랑에 대한 추억도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도 가지지 않으며, 결혼에 임해서도 잇속에 밝고 냉정하다. 이는 최정희 소설의 여성 인물들이 '낭만적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최정희의 「천맥」의 후처와 비교해 보면 그 현실성이 두드러진다.

29) 이에 대해서는 서정자, 「지하련의 페미니즘 소설과 '아내의 서사」, 『지하련 전집』(푸른 사상, 2004), pp.339~368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 4. 1930년대 초의 학생운동과 작가 임순득

제3세대 여성 작가를 대표하는 임순득은 이화여고보와 동덕여고보를 다니면서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을 했던 여성들과 인연을 맺었다. 학생 맹휴와 관련해 퇴학당한 뒤에는 일본 유학을 거쳐 1930년대 후반 작가이자 평론가로 등장했다. 다른 여성들이 지하 운동으로 내려갔을 때 임순득은 공적인 공간으로 나와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임순득을 193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여성활동가의 대변자라고 할 만하다. 물론 임순득의 작품 활동이 1937년부터 시작되었기에 이미 과거의 학생 운동이나 그 당시의 지하 운동에 대한 진술이나 소설적 묘사는 거의 불가능했다.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거나 일상의 작은 이야기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담는 형식으로 문학 경향이 변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노동운동과 관련된 진술은 임순득의 글에서 찾기 어렵다. 그러나 그런 만큼 오히려 활동가였던 여성의 개성적인 내면과 지적 궤적을 더듬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임순득이 시골에서 올라와 1929년 4월 이화여고보에 입학했을 때 학생 사회의 분위기는 반일 감정과 사회주의적인 정서가 높았다. 1929년 말에 광주학생운동이 시작되어 이화여고보에서는 1930년 1월 15일에 서울 시내의 다른 여학교들과 함께 연합 시위에 나섰다. 이 연합시위운동은 여학생 운동 사상, 그리고 근우회 운동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깊은 사건으로 평가된다.<sup>30)</sup> 이화여고보 4학년 최복순(崔福順)이 근우회 간부 허정숙을 수차례 찾아가 조언을 구하였으며 허정숙을 통해 서울 시내 이화여고보, 동덕여고보, 배화여고보, 숙명여고보, 경성여자미술학교, 경성실천여학교, 경성여자상업학교, 태화여학교, 경성보육학교의 여학생들이 서로 규합하여 벌인 대규모 시위였다. 광주학생운동의 뒤를 잇는 동맹휴학운동은 1931년

30)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도서출판 풀빛, 1992), p.201.

까지도 치열하게 전개되어 1930~31년에 걸쳐 무려 백여 건의 동맹휴학이 있었다. 그러나 1932년 이후로는 동맹휴학이 급속히 감소하고 학생 운동은 소수 정예의 사회주의적 비밀 결사 운동으로 이어졌다. 민족주의계 학생들은 주로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계몽운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동을 전개해 갔다.<sup>31)</sup>

여학생 연합 시위 당시 1학년이었던 임순득은 3학년 때인 1931년 6월에 이화여고보의 동맹 휴학을 주도하여 퇴학을 당한다. 이화여고보에서 임순득은 책 많이 읽고 말 잘하는 뛰어난 학생이면서 당시의 이화여고보의 교육 방식과 사회문제에 불만을 가진 학생이었다. 이화여고보 시절 임순득과 같은 반이었던 수필가 전숙희의 회상은 당시의 임순득의 면모를 전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 당시 나와 가장 친하던 급우 중에 Y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는 열렬한 독서가였으며 능변가여서 나는 거의 반하다시피 그 아이와 붙어 다녔었다. 그런데 Y는 미스 취치 교장과는 아주 사이가 나빠 언제든지 '저 교장이 이 학교를 그만 두든지, 내가 그만 두든지 양단간에 결판이 나와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 워낙 개성과 고집이 강한 Y는 결국 상급반 책임자들을 다 동원하고 매수해 일을 벌일 단계에 이르고야 말았다.<sup>32)</sup>

어느날 오후, Y는 자기 집에서 의논할 일이 있으니 몇 사람 모이자고 하여 무심코 그의 집을 방문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만 대어섯 명이 모였다. [...] 원래 말 잘하는 Y는 열변을 토해 가며 학교 당국과 몇몇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태도가 틀려먹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정오가 되자 주모급의 한 학생이 교정에 있는 종을 울렸다. 이것을 암호로 전 교생이 일제히 교정에 모였다. 이때 Y는 용감하게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교장과 교사 배척문을 낭독하고 전교 동맹 휴학을 선포했다. 황급히 쫓아온 선생님들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온 몸이 떨렸다. 교정은 잠

31) 위의 책, p.203.

32) 전숙희, 「우정과 배신」, 『문학, 그 고뇌와 기쁨—전숙희 문학 전집』 1(동서문학사, 1999), pp.138~139.

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다음 순간, 전교생들은 교정 위, 풀밭으로 가서 농성 대열로 주저 앉았다. 삼사일 간의 휴학이 계속된 후 학교 당국은 몇 가지 조건을 들어주기로 하고 동맹휴학은 일단 수습되었다. 뒤이어 주모자급으로 손꼽힌 우리들은 경찰에 수감되었다. 배후 조사를 위해서라고 했다.<sup>33)</sup>

이 사건으로 이화여고보는 7월 2일까지 임시로 휴교를 하였으며 <sup>34)</sup> 행된 학생들은 40여일 정도 갇혀서 취조를 받고 폭행도 당하였다.<sup>35)</sup> 동맹휴학 사건으로 서대문서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은 결과 3학년이었던 조숙현은 '조선공산당 재건 준비회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고 임순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sup>36)</sup>

1931년 6월의 맹휴로 이화여고보에서 퇴학당한 뒤 임순득은 동덕여고보에 편입했다가 독서회 사건 관련으로 다시 퇴학당했고, 1933년 7월 전주로 귀향한 임순득은 일본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다.<sup>37)</sup> 이후 1937년 3월

33) 전숙희, 「감방 생활도 해 보고」, 위의 책, pp.141~142.

34) 「이화여고 맹휴 침례화, 이사회에서는 요구를 기각, 의연히 수업을 거절」, 『조선일보』, 1931.6.27.; 「맹휴생은 경찰에, 학교는 휴학 연기, 7월 6일까지 휴학 연기, 이화여고 사건 속보」, 『조선일보』, 1931.7.2.

35) 전숙희는 “종로경찰서 사찰계에서 일일 형사들에게 심문을 받은 나는 온갖 모욕과 욕설을 당했다. 정직한 말을 해도 ‘빠가’, ‘우소스끼’ 하면서 뺨을 갈기고, 조서를 쓰던 펜촉으로 내 뺨을 긁어내려 그 상처는 아직도 내 얼굴에 남아 있다.”라고 경찰서에 연행되었을 때의 가혹했던 취조를 회상하고 있다. 전숙희, 앞의 책, p.142.

36) 조숙현은 1930년 1월 15일의 서울 시내 여학생 연합 시위 당시, 주모자였던 이화여고보의 최복순과 한 방에서 자취를 하는 사이였기에 경찰에 연행되어 신문을 받고 풀려났다.(「조숙현 신문 조서」,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52) 그후 최복순은 고려공산청년회원으로 있으면서 후배인 조숙현에게 1931년의 맹휴를 부추겼다고 한다. 임순득은 조숙현과 함께 독서회 회원이었다.(경성 서대문경찰서장, 「사립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생도 맹휴에 관한 건」(1931.9.7.) 『사상에 관한 정보철(1)』)

37) 임순득은 더 이상 조선에서 학교를 다니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2학기 시작 시기에 맞춰 9월 쯤 일본으로 유학하려고 한다는 전주 경찰의 보고가 있다. 「容疑 退學生 退城二關スル 件」, 京鍾警高秘 第8682號, 1933.7.7, 『思想二關スル 情報(6)』; 그런가 하면 1934년 1월 이재유를 검거한 일제의 경찰이 그런

이재유 사건의 증인으로 임택재가 심문을 받았을 당시, 임순득은 서울 견지동에 있는 '조선미술공예사'에서 기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sup>38)</sup>

이런 예사롭지 않은 경력을 가진 임순득은 1937년 단편소설 「일요일」(1937.2)과 평론 「여류작가의 지위—특히 작가 이전에 관하여」(1937.6.30~7.5)를 발표하며 작가이자 평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

'조선공산당재건경성트로이카'의 조직표(김경일, 『이재유 연구』, p.47)에는 임순득이 오빠 임택재가 중심이 된 '반제동맹'의 하부에 '여상(女商)'의 책임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 시기 여상이라면 사립 경성여상산업학교를 가리키는 것인데, 앞의 경찰의 보고와 여상 책임자는 잘 맞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임순득은 일본 유학을 떠난 것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박진홍, 이순규, 이경선 같은 동덕여고보 출신의 학생들이 전위활동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시기, 그들과 관련해서 임순득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만약 그가 국내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정치적 입장을 바꿔서 각종 활동에 관여를 안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후 임순득이 작가로 나서서 쓴 글이나 취한 입장 등을 보면(간도 공산당 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 일제가 1936년 7월 22일 급작스럽게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소재로 한 강경애의 소설 「어둠」(『여성』 1937.1~2)을, 후배 작가인 임순득이 「여류작가 재인식론」(『조선일보』 1938.1.28~2.3)에서 고평한 것은, 이재유 그룹의 기관지 『저기』 제1호(1936.10.20)에 이 사건을 비판하는 「사형을 받은 중국공산당원 18명을 추도한다」라는 글이 실린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국내에 있으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1933년 3월 기소유에 처분을 받고 풀려났던 오빠 임택재는 이재유 그룹과 연결되어 1934년 3월 「미야게 교수 사건」(당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일본인 미야게가 이재유를 숨겨주었다가 체포된 사건. 이재유는 일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1934년 4월 탈출하여 미야게 교수의 사택에 숨어 있었다. 5월 21일 미야게 교수가 체포될 때 탈출하여 다시 검거를 피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에 연루, 다시 체포된 지 1년 반만에 1935년 12월 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그 뒤에도 임택재는 이재유 그룹과 연관을 가지면서 활동했던 것 같다. 1937년 3월에는 이재유 사건의 증인으로 다시 경기도 경찰부에 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이렇게 거듭된 취조와 감옥살이에서 얻은 병으로 결국 임택재는 1939년 3월 사망했다.

38) 조선총독부 소장 조선인항일운동 조사 기록, 『이재유 외 6명 치안유지법 위반 신문조서』(1937) 중 「任澤宰證人訊問調書」.

## 5. 1930년대 신여성의 이상과 자율적 여성 주체

1927년 말부터 소개된 콜론타이즘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조건 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래서 연애는 개인적인 일이고 그렇게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로운 만남이 불가능한 조선의 현실에서는 사회적 임무가 우선한다고 보았다.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성욕의 해소는 가능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이상적인 연애가 유예된 상황에서, 그리고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서, 여성의 성은 도구적으로 것으로 되어버렸다.<sup>39)</sup> 가혹한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에 급급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같은 것을 생각하거나 주장할 겨를이 없었다. 임순득의 동덕여고보 동문인 박진홍, 이순금과 이재유의 관계가 이 상황을 시사해 준다.

일제의 검거를 피해 지하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이재유는 1933년 이순금과 동거하다가 1934년 1월 이순금이 체포된 후 1934년 8월부터는 박진홍과 동거하면서 일제의 검거를 피했다.<sup>40)</sup> 박진홍은 1935년 1월 체포되었고 옥중에서 이재유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아기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겼다.<sup>41)</sup> 이순금과 박진홍은 감옥에서 마주쳤고 이재유와

39) 당시 남성 소설가의 작품에는 이런 측면에 대한 비판적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가령 이태준이 1931~1932년 『신여성』에 연재한 「구원의 여상」에서 “콜론타이는 처녀 아닌 대신에 당당한 일국의 외교관이 아니냐. 처녀? 흥”(p.184)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호도하는 철없는 여성과 “나의 개인 행동에는 침묵해 달라, 그와 반대로 나의 사회 행동에는 엄정한 비판과 편달이 있어 달라.”(p.210); “당신과 나는 동지간이오, 보통 동지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신은 여성이요 나는 남성이기 때문에 서로 자유로운 요구에서 동거 생활을 한 것뿐이지 결코 나는 당시를 소유하려 하지 않소, 마찬가지로 당신도 나를 소유할 생각은 단념 하오.”(p.214)라고 하는 이기적인 남성이 등장한다. 인용은 이태준, 『구원의 여상』(태양사, 1937)에서 했다.

40) 박진홍이 검거된 뒤에 이재유는 유순희와도 동거했다고 한다. 오미일, 『박진홍—비밀 지하 투쟁의 레포로 활약』, 『역사비평』 1992, 겨울.

41) 이런 박진홍의 특별한 처지에 대해 당시 신문은 선전적인 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1936년 7월 16일자에는 「우정이 부부애로!—피신하며 지하로 전전하

의 관계 때문에 약간의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재유가 1936년 12월 체포된 후, 일제의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들의 신망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순금이나 박진홍과의 연애 관계를 부인하자 '연적' 관계였던 두 여성은 이재유의 반여성적 태도에 대해서는 함께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sup>42)</sup> 이순금은 1937년 5월에, 박진홍은 7월에 석방되어 나온 뒤, 이재유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노력했다. 이순금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 박진홍도 이재유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이순금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순금의 결혼 지참금을 운동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이유로 박진홍은 적극적으로 이순금의 중매에 나섰고 이순금이 약혼까지 했으나 모두 다시 검거되고 만다.<sup>43)</sup>

그 이전 허정숙이나 정종명이 '조선의 콜론타이'로 불렸는데, 사회주의 여성 운동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이순금이나 박진홍도 남녀 관계에서 상당히 자유로웠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이재유가 체포되었을 때 자기들과 맺었던 연애 관계를 부인하는 것을 비판을 했다고 하니, 이들 그룹이 생각한 이상적 남녀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운동의 대의에 개인의 연애를 종속시키고 성을 하나의 도구로서 바라보는 '당시의 콜론타이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한 발 나아간 지점이었을 것이다.

1937년 2월 소설 「일요일」을 발표하며 문단에 나온 임순득이 해방 전에 발표한 소설<sup>44)</sup>은 편수는 많지 않지만 임순득은 전대, 혹은 동 시대의 다

---

다가 박진홍 만나 동거 생활—, 「육중 출생의 '2세 이재유' 어머니 공판에 방청—지하로 전전하는 이의 애처 박진홍 심문, '용산적노사건' 2일 계속 심문—」라는 식으로 2개나 실렸다.

42) 김경일, 『이재유 연구』, p.258.

43) 1937년 7월 28일의 『조선일보』는 박진홍과 이순금이 다시 검거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유치장서 해후된 연적이자 또 동지, 검찰부에 검거된 박진홍의 뒤따라 이순금 4년만에 출감하자 또 피촉, 이관술의 누이로 다시 사건에 연루」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붙였다.

44) 「일요일」(1937.2), 「대모」(1942.10), 「가을의 선물」(1942.12), 「달밤의 대화」



른 여성 작가와는 완전히 다른 작품 세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지향성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임순득이 독립된 여성 주체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임순득 작품의 여성 주인공은 모두 독신이다. 「일요일」의 혜영이, 「달밤의 대화」의 순희, 「대모」의 나, 「가을의 선물」의 나, 모두 독신이며 주변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즉 특정 남성과 얽히는 연애 사건의 관련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애나 이성 관계, 살림살이 말고도 독립적인 신여성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제3기 여성작가로서 임순득 소설의 의의가 있다.

1930년대의 신여성의 면모와 연관지어 「일요일」을 읽으면 소설에 등장하는 타이피스트, 유치원 보모, R여전 학생은 1930년대 후반의 모던 걸이다. 이들은 ‘산책하기, 카페 가기, 영화 보기’ 등으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런데 주인공 혜영이만 감옥에 있는 윤호 때문에 이런 생활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소설은 혜영이의 외로움과 혼자라도 버티겠다는 의지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문단의 주류, ‘여류작가’의 주류와는 동떨어진 자리에서 문학적 출발을 하는 작가 임순득의 외로움과 각오가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임순득은 외롭지 않았으니 자기와 같은 세대—여학교 시절 광주학생운동을 겪은 세대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기 세대에 대한 믿음과 그리움을 임순득은 1942년 12월에 발표한 작품 「가을의 선물」에서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가을의 선물」은 젊은 시절 도시 생활에서 방황하다가 모처럼 시골의 부모님 곁에서 한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나’자가 동네 개구쟁이의 조그만 상처를 치료해 주었더니 누군가가 잘 익은 석류를 던져주고 갔다는 간단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작가의 분신으로 보이는 ‘나’와 나의 여학교 시절 친

구들의 심리와 상황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나’의 여학교 시절의 친구 중 한 사람은 은행원에게 시집가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친구조차 내리 딸을 낳고도 의연하게 딸만 다섯은 낳겠다고 하는 여성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설을 쓰는 친구는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 잠을 내어 소설을 써서 장편 대작을 발표할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짧지 않은 청춘의 방황에서 잠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나’는 소년 시대에 방정환의 이야기를 읽은 세대로 지칭한다.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 고향이 있고, 유년기는 그렇다 치고, 그 소년시대에 싹터 오르는 정신을 고 방정환 씨의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보낸 그대—그런 그대들은 처음으로 피가 용솨음치는 것을 깨닫고 인생에는 감동할 만한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데에 눈을 뜨고 행복으로 전율한 기억이 틀림없이 있으시겠지요.

그대들은, 자신의 인생을 더럽고 탁한 것에 물들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마음의 창인 자기 눈동자의 초점을 모으고 계시겠지요.

그대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생업을 하고 계시며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끝없는 그리움으로 미지의 그대들을 부르고 싶은 그런 행복한 환희를 가슴 가득 느끼고 있습니다. 붓접시 위에 있는 아름다운 석류 알갱이를 바라보노라면 그대들 한 분 한 분의 열의가 담긴 나날의 생활 감정이 봄 가까이 느껴집니다.<sup>45)</sup>

윗글에서 특별히 ‘고 방정환 씨의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고 성장한 ‘그대들’이란 말로 입순득은 무엇을 환기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작가가 동질감을 느끼는 집단의 한 징표로서 방정환(1899~1931)이란 천도교를 배경으로 한 소년 운동의 경험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방정환은 번역 동화집 『사랑의 선물』(1922)을 베스트 셀러로 만들었고 개벽사에서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 이때 『어린이』는 단순히 달마다 발행되는 아동

45) 입순득, 「가을의 선물」(원제는 秋의贈り物), 『毎日 寫眞旬報』(1942.12).

잡지 차원을 넘어서서 소년 운동의 매체였다. 일종의 독자 조직을 꾸렸고<sup>46)</sup> 소년회 활동과 야학당의 교과서처럼 사용되면서<sup>47)</sup>, 한창 때는 발행부수 3만 부를 기록했다. 『어린이』지의 고정독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발행하기도 했다.<sup>48)</sup> 아이들이 이런 잡지를 읽을 수 있는 집이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와 부모의 교육열이 있는 곳이다. 여고보에 진학한 많은 여학생들이 이에 속했다. 『어린이』를 읽고 자란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는 교양을 달리 할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교양의 대부분이 독서 체험에서 얻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임순득보다 2년 먼저 동덕여고보를 다닌 이효정의 시에도 이런 유년에 대한 기억이 드러나 있다.

내 어릴 적 어머니 바느질 하시던 모습/ 흠질 박음질 감침질/ 한 땀 한 땀/  
바늘 쥐 어머니 손은 물찬 제비/ 나 그 옆에 앉아/ 『어린이』 잡지 읽어 드렸  
지//

내 어릴 적 어머니 바느질 하시던 모습/ 분홍 옥색 연두빛/ 색색이 장만해  
/ 어머니 솜씨는 난(蘭)잎의 고운 손/ 나 그 옆에 앉아/ 『사랑의 선물』 읽어  
드렸지//

46) 임순득이 유년기를 보낸 고창읍에도 『어린이』 잡지를 돌려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꾸려진 소년동맹이란 것이 있었다. “소년동맹과 청년동맹은 [...] 청년들은 청년회관에 집결하고 소년들은 소년회관에 모였다.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소년운동을 지휘했다. 어린이날 행사가 있게 되면 법석을 떨었다. [...]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잡지도 돌려 읽었고 [...] ‘새싹’이라 하여 귀여움도 받아보았다. 회관에서 야학도 개설하고 강습소도 갖고 공일날이면 편을 지어 토론회도 가져주어 “눈을 활짝 뜨고 귀를 기울여 세계를 한 울타리로 하여 제 몫을 찾아 일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도 암시 삼아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가르쳐 주던 학생 형님들도 있었다. 일경이 이런 조직 활동을 가만 두지 않았다. 광주학생사건을 계기하여 해산하여 버리고 간판마저 떼어가 버렸다. 그러나 집은 그대로 남아 있어 소년동맹 사무실로 사용하며 [...]” 『고창중고 60년사』(고창중고등학교 고창중고동창회, 1979), p.216.

47) 민윤식, 『소파 방정환 평전—청년아, 너희가 시대를 아느냐』(중앙M&B, 2003), p.225.

48) 이명희, 『어린이』 자매지 『학생』의 의미, 『상허학보』 4(2001).

내 어릴 적 어머니 바느질 하시던 모습/ 차곡차곡 지어 놓은 옷들은/ 하나  
같이 아름다운 예술품/ 난 그 옆에 앉아/ 『사씨남정기』 읽어드렸지// (후략)<sup>49)</sup>

그 이전 세대, 가령 강경애는 『춘향전』에서 한글을 깨치고, 『조웅전』, 『숙향전』 같은 고전 소설을 거의 독파했다고 한다. 박화성도 유사한 독서 경험을 피력했다.<sup>50)</sup> 그보다 더 이전 세대인 나혜석이 어떤 독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년 시기 구소설, 신소설을 읽은 세대와 『사랑의 선물』과 『어린이』를 읽은 세대의 감수성은 다를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는 천도교 소년 운동의 매체로서 “소년 운동을 들불처럼 타오르게 했고, 나라 잃은 사람들에게 조선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으며, 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작문교실’ ‘현상 글 뽑기’ 난을 통해 아동문학가를 길러내었다. 임순득이 한글을 깨쳤을 때 『사랑의 선물』과 『어린이』를 통해서 세상에 눈뜨기 시작했을 것이며, 이 잡지를 읽고 성장한 이들이 임순득의 세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여성 집단의 이상을 임순득은 소설 ‘대모(代母)’<sup>51)</sup>에서 그렸다.

「대모」에서 상정하는 이상적 여성 ‘혜원’은 여성이 “자립하기에 가장 조건이 나쁜 환경”인 ‘현대 조선’에서 살면서 “좋은 의미로 굉장히 여성스럽지만 저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강한 개

49) 이효정, 『어머님의 바느질』, 『회상』(도서출판 경남), 1989, pp.108~109. 이효정은 동덕여고보 출신으로 안재성의 『경성트로이카』의 중요 등장인물이다.

50) “내가 맨처음 읽은 에기책은 [...] 『조웅전』과 『유충렬전』, 『숙향낭자전』이었고 [...] 일곱 살 때부터 소설이란 것에 취미를 깨달은 나는 우선 『치약산』 상권, 『옥빈홍안』, 『빈상설』, 『구의산』으로부터 나중에 손에 들어온 『치약산』 하권, 『추월색』, 『모란봉』까지 다 읽고 나서 [...] 신소설 등등 다치는 대로 읽다가 [...]”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여원사, 1964), pp.41~42.

51) 일본어로 쓴 소설로서 원제는 「나쓰께오야(名付親)」(『문화조선』 1942.10)이다. 일본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친척이 이름을 지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나쓰께 오야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친척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와 일제 말기의 여성 문학』(『여성문학연구』 8, 2002.12); 『식민지에서의 민족과 여성의 문제—일제 파시즘하의 최정희와 임순득』(『실천문학』 2003년 봄)을 참고할 것.

성을 가진 인물이다. 또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조선 여성 해원이 사랑할 만한 이상적인 남성은 모세와 굴원을 반씩 합한 것 같은 성숙한 인격이어야 하지만 그런 남성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런 현실을 알면서 의연하게 버틸 수 있는 것, “허세라도 좋으니까” “어깨를 펴고 의연하게 여자의 생활을 고집”하는 것, “자기의 슬픔이라거나 그 비슷한 것에 어리광을 부리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싫은 속성”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이상이었다. 1942년에 발표한 소설에서 모세와 굴원, 홍명회를 들먹이는 것에서 전향하고 친일의 길에 나선 이들을 비난하며 여전히 민족해방의 이상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격화 되지 않은 모세와 거만하지 않은 굴원이어야 한다고 토를 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민족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1942년의 주장은 사회의 완전한 개변을 통한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면서, 일과 사랑을 나누어 보았던 사회주의 여성 운동 쪽이 1930년대의 술한 사건을 겪으면서 도달한 한 지점일 것이다.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겠다는 남성들이 여성문제에 관해서는 성차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식에 일부 여성들은 도달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이들 여성은 해방 후 여성의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여성의 독자적 조직을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2)</sup>

## 6. 맺음말

이상에서 신여성과 그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를 그들의 세대 및 지향점과 관련하여 세 세대로 나누고 특히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계열의 신여성 및 제3기 여성 작가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52) 宋連玉, 『朝鮮婦女總同盟—8.15 解放 直後の「女性運動」』, 『朝鮮民族運動史研究』 2(東京: 靑丘文庫, 1985).

당시의 '여류작가' 논의에서 중심이 된 것은 박화성, 강경애, 최정희로 대표되는 제2기 여성 작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성'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상찬된 최정희였다. 제3기 여성작가인 임순득, 지하련, 임옥인은 1930년대 후반 최정희에 대한 대타의식을 가지고 등장하였고, 낭만적 사랑이나 모성 본능 등에 비판적 거리를 가지고 자율적인 여성 주체를 그려내는 데 힘썼다.

1930년을 전후한 학생 운동에서 성장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운동과 당재건 운동에 투신한 새로운 종류의 '신여성'—사회주의 여성들에게 콜론타이의 생각이 수용되면서 『삼대의 사랑』의 인물인 게니아의 연애 방식은 한 쪽에서는 무조건적인 비난, 한 쪽에서는 무조건적인 답습이라는 현상을 낳았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대중운동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게니아니즘'은 비난을 받았고 여성들 자신도 그것의 현실부적합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좀더 근본적으로 독립한 여성, 자율적인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식적인 기록물의 자신의 목소리를 담을 기회나 여유가 없었기에 그들의 생각은 그들과 같은 세대로 여학생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뒤 작가가 되어 그들을 대변한 것으로 보이는 제3기 여성 작가 임순득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제3기 신진 여성 작가로서 임순득이 가지는 여성문학사적 의의도 여기에 있다.

## □ 참고문헌

- 『일제 경성지방법원 편철문서』, 경성지법검사국.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1,52(번역본), 국사편찬위원회, 2002.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 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김경일, 『이재유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 역사, 2004.  
 동덕70년사 편찬위원회 편, 『동덕 70년사』, 동덕여학원, 1980.

-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 민윤식, 『소파 방정환 평전—청년아, 너희가 시대를 아느냐』, 중앙M&B, 2003.
-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 국문과 박사, 2003.
-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여원사, 1964.
- 변은진, 「1930년대 경성지역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연구」, 고려대 석사, 1991.
- 서정자 편, 『지하련 전집』, 푸른 사상, 2004.
- 안재성, 『경성트로이카』, 사회평론, 2004.
- 오미일, 「박진홍—비밀지하 투쟁의 레포로 활약」, 『역사비평』 1992년 겨울호.
- 이명희, 「『어린이』 자매지 『학생』의 의미」, 『상허학보』 4(2001).
- 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와 일제 말기의 여성 문학」, 『여성문학연구』 8(2002. 12).
- 이상경, 「식민지에서의 민족과 여성의 문제—일제 파시즘하의 최정희와 임순득」, 『실천문학』 2003년 봄.
- 이효정, 『회상』, 도서출판 경남, 1989.
- 전숙희, 『문학, 그 고뇌와 기쁨—전숙희 문학 전집』 1, 동서문학사, 1999.
- 편집위원회 편, 『고창중고 60년사』, 고창중고등학교 고창중고 동창회, 1979.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 도서출판 풀빛, 1992.
- 홍창수, 「서구 페미니즘 사상의 근대적 수용 연구」, 『상허학보』 12(2004.8).
- 콜론타이(신윤선 역), 『연애와 신도덕』, 신학사, 1947.
- 콜론타이(김제헌 역), 『붉은 사랑』, 공동체, 1988.
- 콜론타이(석미주 역), 『홀로 된 이별, 사랑』, 푸른 사상, 1991.
- 비어트리스 판스워드(신민우 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풀빛, 1988.
- 武田美保子, 『新しい女の系譜—ジェンダーの言説と表象』, 東京: 彩流社, 2003.
- 金子幸子, 『近代日本女性論の系譜』, 東京: 不二出版, 1999.
- 宋連玉, 「朝鮮婦女總同盟—8.15 解放 直後の「女性運動」」, 『朝鮮民族運動史研究』 2, 東京: 青丘文庫, 1985.
- 鈴木裕子, 『岩波 女性學 事典』, 岩波書店, 2002.
- 大村益夫·布袋敏博, 『近代朝鮮文學 日本語作品集』, 綠陰書房, 2004.
- Alexandra Kollontai, *Selected Articles and Speeche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84.

## Abstract

**A Study on the Genealogy of Korean New Women and Women  
Writers of the 1930s**

Lee, Sang-Kyung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reality of women's movements and literature in the 1930s through the work of Soon-Deuk Im, an author who was also a representative of woman activists. Her books show the inner side of the Korean woman's mind and the activists' idealism toward liberation of the nation and women.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existence and detailed activities of the woman activist group, which led labor movements and revolutionized women's movements of the early 1930s following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29.

Socialists went underground immediately after the disbandment of "Keun Woo Hoe"(an anti-Japanese woman group), in the early 1930s and a new form of women's movement began to appear. In the 1920s, these women were called "Shin yeosung"(New Women). Then, in the late 1920s, they were separately acknowledged as "Modern Girls" and "Kollontaists". In the 1930s, whe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as still strong, "Modern Girls" settled down as teachers, mothers, and wives, while the descendents of Kollontaists trained themselves through underground movements. Revolutionists of the 1930s, including Jin-Hong Park, Soon-Keum Lee, and Soon-Deuk Im, a writer, took part in the Seoul Girl Students' Movement of the early 1930s. They were active members of the students' movement group that led reading circle activities and union strikes at the Dong Duck Girl's High School.



In the beginning, Jin-Hong Park and Soon-Keum Lee followed "Kollontaiism", as had many previous women socialists. They were then led to seek with men without separating public and private matters through trial and error and self-criticism arising from their everyday lives and underground movements. As a writer, Soon Deuk Im criticized the works of women literature leaders of the late 1930s. She also indirectly criticized Japanese Colonialism through her works, in contrast to other writers who tended to support Japanese colonialism.

This research, the reality of the movements and literature concerning these women is revealed. These women had not received much attention among "Shinyeosung" in the 1930s and yet they had fought against the colonialism to the end, beginning with socialistic women's movements.

**key words** : Seoul Girl Students' Movement, Soon-Deuk Im, Jin-hong Park, Modern-girls, Marx-girls, Kollontai, Zhenianism, Presents of Autumn, The Godmother, Woman writer, Up-and-coming young writer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